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4. 22.(월)

강인선 2차관, 캐나다 경제인협회장 면담

- 한-캐나다 간 경제협력 논의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22.(월) 캐나다 무역사절단(TCTM, Team Canada Trade Mission)의 일원으로 방한 중인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장 등 캐나다 경제인협회(BCC, Business Council of Canada) 대표단과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 동 면담에는 ▲Paul Thoppil 캐나다 외교부 인태무역대표 및 ▲Perrin Beatty 캐나다 상공회의소장 ▲Andrew Elnazir 아킨스리엘리스社 원전 글로벌마케팅 부회장 등 캐나다 기업인 동석

강 차관은 270여명에 달하는 캐나다측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양국 경제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하고, 한-캐나다 관계가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트뤼도 총리 방한 등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최상의 협력 관계로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외교부로서도 양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캐나다 경제인협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하이더 회장과 캐나다 측 경제인들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제안보의 시대에 한국과 캐나다가 협력할 부분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캐나다 기업들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범위 및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강 차관도 한국과 캐나다가 특히 기후변화,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배터리와 같은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편, 한국 개최 예정인 올해 5월 AI 글로벌 포럼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캐나다 측 기업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담당 부서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동운	(02-2100-7684)
		담당자	사무관	김가원	(02-2100-7690)